

한국 소설은 재미없다구요? 일단, 50권을 읽어보세요

‘땃글부대’ 소설가 장강명
다독가 50명에 추천·서평 받아
전자책 ‘한국 소설이 좋아서’ 무료 공개

한국 소설은 재미있다? 재미없다? 아니 어렵고 재미도 없다?

언제부터나 한국 소설에 대한 독자들의 인식은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했다. 순수문학 애호가들은 한국 소설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여전히 꾸준히 있지만, 대다수의 독자들은 외면하는 양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 한강 작가의 맨부커상을 계기로 우리나라 소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한강의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가 한국문학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작용했으며 여기에 조정래 ‘풀꽃도 꽃이다’, 정유정 ‘중의 기원’을 비롯 장강명, 김숨, 황정은, 정지돈 등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작품이 발간되면서 모처럼 한국 소설은 활기를 되찾았다.

그러나 올 초 벽두에 터진 도매업체 송인서적 부도는 모처럼 살아난 한국문학 르네상스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땃글부대’로 40회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한 장강명 작가가 한국 문학에서 멀어진 독자들을 붙잡으려는 새로운 시도를 펼쳐 이목을 끌고 있다.

장 작가는 오늘의 작가상 수상 소감에서 “상금으로 재미있는 한국 소설을 소개하는 무료 서평집을 전자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소설이 어렵고 재미없다는 편견을 깨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물이 전자서평집 형태로 16일 발간됐다. 책과 관련한 잡지를 펴내는 출판사 ‘책(Chaeg)’이 펴낸 ‘한국 소설이 좋아서’는 장강명이 기획하고 50인의 다독가가 함께 만든 서평집이다.

“한국 소설은 재미가 없다”는 불평을 종종 듣습니다. 저는 실은 재미있는 한국 소설들이 지난 몇 년 사이 꽤 나왔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지 않았나 의심합니다. 책은 체형제라서, 읽기 전에는 좋은 물건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특히 소설은 더 그렇습니다. 국경을 넘거나 시간을 버티며 몇 차례 걸려진 외국소설, 과거의 한국소설에 비해 동시대 한국소설은 독자 입장에서 일종의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험을 복돋우려면 누군가 옆에서 ‘그 책 재미있어’라고 권해주어야 합니다.” (장강명-“기획자의 말” 중)



장 작가는 독자들이 한국 소설을 외면하는 것은 쉽고 재미있는 책들이 많은데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일뿐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재미있는 한국 소설을 쓰려는 소설가들이나 한국문학을 응원하고 싶은 독자들을 돕고 싶었다”고 의도를 밝혔다.

이런 기획 하에 월간 ‘책’은 다독가 50명에게 최근 10년 사이에 발행된 한국 소설을 한 권씩 추천해줄 것을 의뢰했다. 단 베스트셀러가 됐거나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은 제외했다. 대신에 작품의 주제나 작가의 지명도보다는 철저하게 ‘재미있는’ 작품을 선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설가 윤후명, 뮤지션 요조, 응급의학과 전문의 남궁인 등 여러 분야의 애독자들이 필자로 참여했다. 이밖에 라디오 PD, 신문기자, 책 마케터, 번역가, 독서모임 운영자, 서점 대표, 독립잡지 편집인, 온라인서점 MD, 독서학교 원장 등 다양한 배경의 필자들이 소설을 추천하고 이



장강명



윤후명

요조

에 대한 서평을 썼다. 평론이 아닌 서평을 쓴 것은 대다수 독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주리소설 ‘탐정이 아닌 두 남자의 밤’, SF소설 ‘용의 이’, 판타지소설 ‘마녀식당으로 오세요’, 역사소설 ‘목격자들’, 로맨스 ‘육조’, 웹소설 ‘호접몽전’, 무협소설 ‘하급 무사’, 스포츠소설 ‘야구 냄새가 난다’ 등이 추천됐다.

추천된 소설의 특징은 ‘문단문학’보다는 장르문학이나 그 경계를 오간다. 그로 인해 서평집은 자체로 독서 길잡이인 동시에 에세이집으로 손색이 없다. 한국 소설도 유명한 외국 소설이나 국내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작품과 비교해 충분히 재미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평 상단에는 감성성·오락성·선정성·난이도 등의 지표를 표시한 인포그래픽도 수록돼 있다.

한편 ‘한국 소설이 좋아서’는 16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등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전자책 전용 단말기, PC, 모바일 기기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종이책으로는 발간하지 않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향 나주 혁신도시서 신년음악회

내일 한전 한빛홀

지난 13일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린 광주시립교향악단 연주회는 관객들에게 근사한 선물이었다. 신년음악회로 준비한 공연은 진숙한 레퍼토리로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이날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 번 나주 혁신도시(17일 오후 7시30분 한전 한빛홀)에서 신년음악회를 갖는다. 광주·전남의 화합과 나주 혁신도시의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무대다.

김홍재 지휘자가 지휘봉을 잡은 신년음악회 첫 곡은 오펜바흐의 오페라 ‘천국과 지옥’ 서곡이었다. 아름다운 멜로디의 음악과 함께 ‘강강술’으로 많이 알려진 곡이다. 이어 피아니스트 박종화(서울대 교수)가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작품54’를 연주했다. 강한 타건과 함께 화려한 연주 스타일로 관객을 사로잡은 박씨는 자신의 앨범 ‘Nunaya’ 수록곡인 ‘아리랑’을 들려



지휘자 김홍재

피아니스트 박종화

줬다.

2부에서는 차이코프스키의 발레 음악 ‘백조의 호수’ 중 아름다운 ‘정경’을 비롯해 ‘꽃의 왈츠’ 등 5곡의 발레곡을 연주했다. 피날레곡은 라벨의 ‘볼레로’.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창단 후 처음 연주한 곡으로 오보에, 클라리넷, 플루트, 색소폰 등 다양한 악기가 반복해 들려주는 멜로디가 점점 고조되면서 마지막 절정을 향해 치달으며 감정을 고조시켰다.

양코르 곡으로는 요한스트라우스 2세의 ‘사냥’ 폴카가 연주됐다. 전석 무료, 선착순 입장.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이에게 영화를 쉽게 설명하려면?

동산아트홀 ‘뮤지컬로 배우는 빈센트 반 고흐’ 공연

2월 24일까지 매주 수·목

‘아이에게 영화를 쉽게 설명해 줄 순 없을까? 아이가 미술과 친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족뮤지컬 ‘뮤지컬로 배우는 빈센트 반 고흐’(사진) 공연이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오는 2월 24일까지 매주 수·목요일 오후 3시)에서 열린다. 유스퀘어문화관이 진행하고 있는 ‘ART 9 페스티벌’ 세번째 작품이다.

YD뮤지컬 컴퍼니가 제작한 이번 작품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날아간 초등학교생 ‘태오’가 빈센트 반 고흐를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노래와 춤, 이야기로 풀어냈다.

과학을 좋아하고 타임머신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은 태오는 수학, 미술, 체육 등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다. 시험 걱정을 하던 태오에게 어느 날 빈센트 반 고흐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날아온다. 고흐가 동생 태오에게 보낸 편지가 잘못 배달 된 것. 고흐를 만나게 된 태오는 ‘해바라기’ 등 고흐의 그림에 점점 관심을 갖게 되는데...

‘난 책이 싫어’, ‘나는 반고흐’, ‘안녕 고흐 아저씨’ 등의 노래를 만날 수 있다. 문의 062-360-843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진경문 ‘섬호집’ 한역 발간

국립광주박물관이 2016년 학술조사 사업의 하나로 조선시대 문장가인 진경문(陳景文·1561~1642)의 시문집 ‘섬호집’(剡湖集)을 한역, 발간했다.

이번 발간은 지난 2010년 진경문의 27세손 진용운씨가 ‘섬호집’ 목판 66점(광주 15919~15984)을 박물관에 기증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2011년 목판본 2점(광기 261, 262)을 오송록씨가 기증하면서 한역본 발간계획을 본격화했다.

‘섬호집’은 1648년 진경문의 아들인 진만귀(陣晩貴)가 부친의 유고를 모아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이 책은 상·하권으로 구성됐으며 17세기 명사인 정두경(鄭斗卿·1597~1673)이 서문을 쓰고, 정철의 넷째 아들인 정홍명(鄭弘溟·1582~1650)이 발문을 썼다.

시는 고시, 율시, 절구 형식으로 이뤄져 있으며 내용은 주로 진경문의 교유 관계와 일상생활을 다뤘다. 반면 문은 일지 형식



‘섬호집’ 목판본

의 특징을 살려 임진왜란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문의 062-570-703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www.aroma-life.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맛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옥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